

2014
10
1ST

COVERSTORY
부산의 밤은
영화보다 아름답다?

KOREANJOURNAL IN BUSAN

[BIFF]
우와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뜨지 못했다.

[BIFF]
우아한 그녀들
백조의 발은
바쁘다.

[부산탐방]
영화보다
흥미로운
부산인들이

[칼럼]
서면에 서면

[현장스케치]
어디에서 왔어요?

[취재불평] 등

REVIEW

19회 부산 국제 영화제 개막작
군중낙원



Contents

부산의 밤은 그들이 있기에 아름답다! P.2

부산의 밤은 영화보다 아름답다?

[취재기] 어디에서 오셨어요? P.3

[Review] 군중낙원 P.3

군중낙원 Steal cut Story P.8

우아한 그녀들... 백조의 발은 바쁘다 P.12

우와!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뜨지 못했다 P.16

[Column] 서면에 서면... P.18

[탐방기사] 영화보다 흥미로운 부산 나들이 P.20

[취재불평] 등... P.22

[연예] 소녀시대 제시카 방출하나? P.24

[게임] 게임은 자유이다. P.25

[경제] 불황기 똑똑하게 신축빌라 고르는 네 가지 방법 P.26

[문화] 헤리티지양상블과 함께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해보자.
P.27

대표 :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 정원훈

기자 : 김기봉, 남상열, 전성민, 김소연, 정주형, 이희재

필진 : 장대웅, 유광중, 이상규, 김동엽, 박성준, 문성호, Jay Lee,
윤명진, 김성중, 정현욱, 정상균, 임곤태, 배기성

등록번호 : 서울 아02673

등록일 : 2013년 5월 29일

발행처 : (주)텐스페이스

전화 : 070-7168-1111

팩스 : 02-2168-9887

부산의 밤은 그들이 있기에 아름답다!

사실 이번 웹진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걱정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획했던 부산영화제 출장이 잡혀 있었고, 영화잡지를 테마로 계획해 놓았기 때문 입니다.

출장 전, 후 저희는 모두 부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뿐더러 왠지 모를 설렘까지 안겨 주는 신비한 도시임에는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은 국제영화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들이 부산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코리아저널도 그 들썩임에 동참하고자 2박3일의 취재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사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렸고, 실제로 부산에 머물렀던 시간은 3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자 사람들을 만나고 명소를 돌아다니며 부산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부산은 밤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부산 일정 첫날밤에 봤던 황령산 야경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 펼쳐진 부산 야경은 제 두 눈 속에 넣고 간직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부산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부산에서 찍은 1,500장의 사진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여러 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후보작들을 검토하다 결국 커버스토리로 잡았던 '부산의 밤은 아름답다!'를 '부산의 밤은 영화보다 아름답다?'로 다시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표지가 부산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군중낙원'의 스틸 컷이었기에 저희는 이번 커버스토리의 흐름을 다 바꿀 수 밖에 없었죠.

고민 끝에 내린 이 결정이 사실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표지 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들 모두 그렇기에 다시 기사를 그 주제에 맞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어디에서 오셨어요?"를 부제로 삼아 현장 스케치를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개봉작인 '군중낙원'을 꺼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명 깊었던 장면과 스틸 컷을 함께 잡아보고, Review를 지나 저희의 이야기는 부산이야기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죠. 개막식의 여신들의 강림을 물위에 우아한 백조의 발이 바쁜 것에 빗대어 전해하고,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었지만, 되지 못한 '우와!한 그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부산의 서면이야기를 통해 부산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탐방기사는 영화보다 흥미로웠던 부산나들이로 잡아보았고, 취재불평기도 하나 실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온라인기사 중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괜찮은 기사를 그 뒤에 소개했는데요. 연예코너는 소녀시대의 제시카 방출기사, 게임코너는 "게임은 자유이다."라는 칼럼을, 경제코너에서는 불황기 똑똑하게 신축빌라 고르는 네 가지 방법을, 문화코너에서는 헤리티지양상블 기사를 뽑아보았습니다.

웹진 창간호를 공개된 지 어느새 2주!! 우리는 또 다른 웹진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영화, 아름다움. 이상 세가지 단어를 공통으로 묶어 두 번째 웹진에 녹여 넣은 이번 호를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기사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11 October, 2014

2014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현장스케치 *어디에서 오셨어요?*

2014년 10월 1일.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있을 2014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약 6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다. ‘와~~ 부산이다’ 이게 얼마 만에 밝아본 부산 땅이란 말인가! 짝조름한 바다내음과 쉼 없이 들려오는 여학생들의 부산사투리. 왠지 정겹고 기분이 좋아진다. 2014년 10월 2일 오전 9시. 개막식 레드카펫 게스트 드롭존 추첨을 위해 일찌감치 영화의 전당 프레스센터에 도착했다. 프레스센터에는 취재를 위한 각기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자리배정 추첨을 시작했다. 떨리는 순간이다. 만약 뒤쪽 번호로 추첨이 되면 애꿎은 배우들의 어깨만 찍고 오기 십상이다.

“32번 코리언저널”아싸 앞쪽이다. 재빨리 달려가 자리를 잡았고 벽에 명함을 붙인 뒤 미리 준비한 사다리까지 세워 놓았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기자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소리...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개막식 레드카펫이

시작하려면 아직도 7시간이나 남았다. 일단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나의 신성한(?) 자리에서 햄버거를 먹었고, 주위를 보니 기자들이 다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마침 부산국제영화제 개봉작인 ‘군중낙원’이 상영 된다고 자리를 비워두더라도 일단 주위의 동태를 살피고





떠나기로 결정. 다른 기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 나가는 가운데 군중낙원 언론시사회를 관람하고 기자간담회에까지 참여했다.

오후5시. 이제 딱 한 시간 남았다. 어김없이 배꼽시계는 또 올려대고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김밥과 싸구려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스트로브? OK, 렌즈? OK. 갑자기 관중석에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밀려온다. 즉, 드디어 레드카펫이 시작한다는 뜻이다. 저녁 6시가 되니 배우들이 속속 도착을 했다.



함께 레드카펫이 닫히고 추가로 개막식에서 한 시간을 또 투자했다.

비록 두 시간의 촬영시간이었지만 이 두 시간을 위해 투자한 시간을 감안하면 힘든 시간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도 여기가 어딘가.. 부산 아닌가... 몸은 지쳤지만 부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게 치유가 되었고 그만큼 또 얻을 점도 많았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베테랑다운 위상을 당당히 떨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회가 있는 민락 회 센터로 향했다.



구해선... 예쁘다, 조정석... 실물이 낮네? 정우성... 닥고 싶은 유전자! 조여정... 조여정?? 정신 없이 셔터를 눌러댄다. 레드카펫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와 진배 없다. 앞에서 허리 좀 펴라 치면 앉으라고 아우성이고 배우를 따라 쪽 찍다 보면 옆에 사람이 걸린다. 이쪽 좀 봐주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배우는 야속하기만 하고, 행여 내 쪽으로 손이라도 흔들어 주면 그 배우는 이미 광팬이 되고 싶은 기분이다. 또 레드카펫을 걷다가 셀카를 찍는 배우들이 얼마나 많던지.. 이게 셀카봉의 힘이란 말인가? 레드카펫이 시작된 지, 한 시간. 맨 마지막으로 영화 '해무'의 출연배우인 문성근씨와 한예리양의 등장과



[글 남상열]

PARADISE IN SERVICE

鈕承澤 作品
a Doze, Niu Chen-Zer film

美麗的小島
荒謬的命運
跨時代的青春記憶

軍中樂園

阮經天 萬茜 陳建斌 陳意涵

出品 紅豆製作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華映兄弟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第一創作有限公司 聯合出品 聯誼會聯合股份有限公司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聯合出品 紅豆製作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華映兄弟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第一創作有限公司 聯合出品 聯誼會聯合股份有限公司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聯合出品 紅豆製作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華映兄弟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第一創作有限公司 聯合出品 聯誼會聯合股份有限公司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聯合出品 紅豆製作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華映兄弟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第一創作有限公司 聯合出品 聯誼會聯合股份有限公司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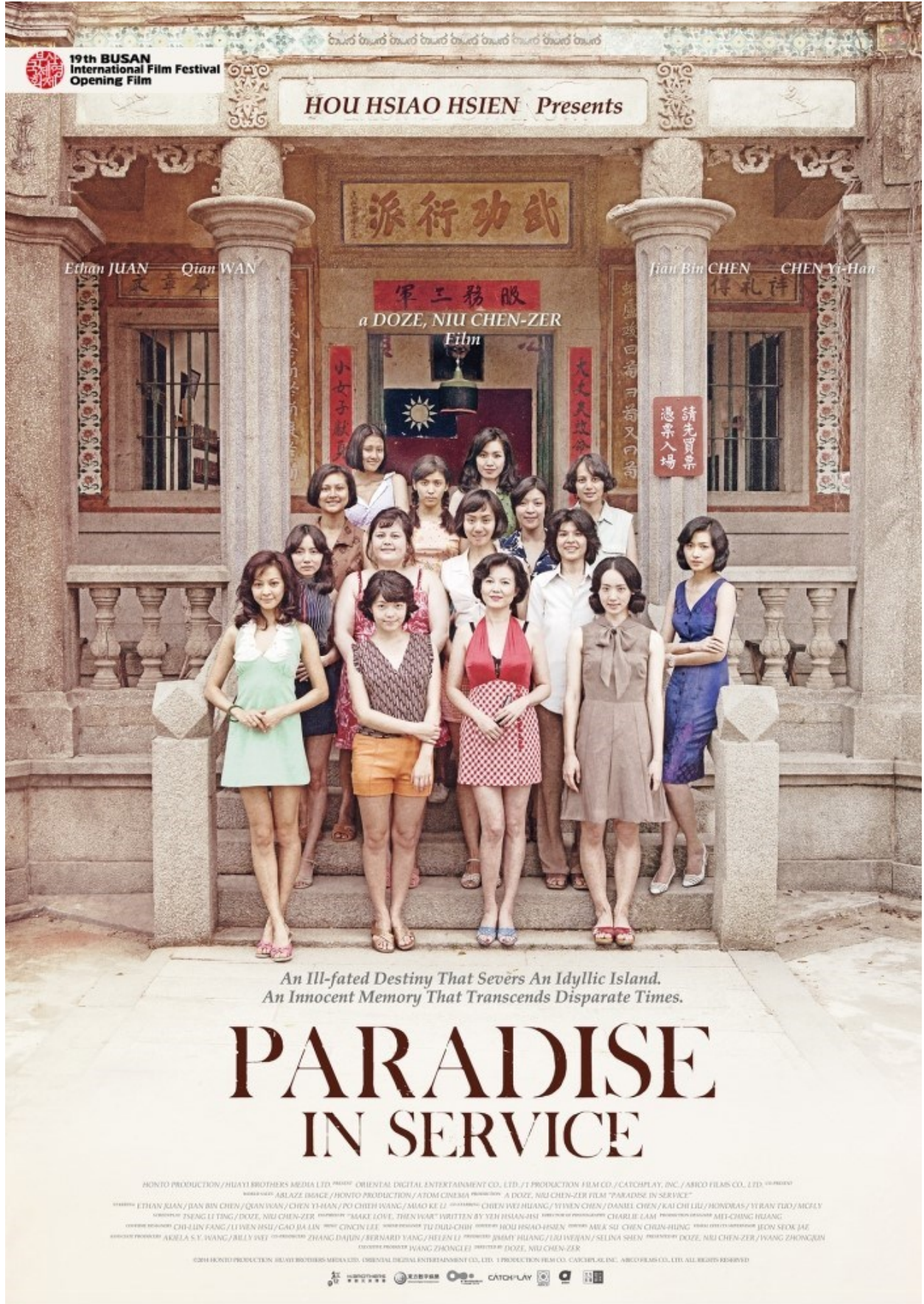
聯合出品 紅豆製作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華映兄弟股份有限公司 聯合出品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第一創作有限公司 聯合出品 聯誼會聯合股份有限公司 臺灣電影製片廠有限公司

9月5號 過衆入場

Review

군중낙원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한 영화





첫인상은 그랬다. 조금 뼈딱했다 ‘군영 내 공창의 이야기라고?’ 이 민감한 시기에? (매주 수요일이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영화제에서 그것도 개막작이라니!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 위원장이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위안부, 여성인권, 공창 이런 사회적 정치적 문젯거리들은 이미 머리 속에서 떠나고 잔잔한 감동의 물결만이 마음속에 남았다.

세상에나 이렇게 감성적인 영화가 있을 수 있다니. 영화는 눈물 나게 슬프지 않다. 배꼽을 째 만큼 웃기 지도 않다. 아랫도리가 뜨듯 해지는 야한 장면도 없다. 그렇다고 가슴 저미는 사랑이야기도 없다. 그저 비극적 시대를 살아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개해나간다..

1969년 대만의 금문도. 아직도 중국 본토와 대치중인 이곳의 해안정찰부대인 해룡부대에 신병 파오가 전입해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1945년 2차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은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대만을 연합국측에 반환하자 중국 국민당은 대만을

인수하기 위해 국부군을 파견했다. 그 후 중국 본토에서는 장제스의 군부군과 마오쩌둥의 공산군으로 나뉘어 내전이 발발했고 1949년 승리한 마오쩌둥의 공산군은 본토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패배한 장제스는 대만으로 정부를 이전해 중화민국을 세운다. 그로부터 계속된 중국과 대만의 대치상황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문도이다.



신병 파오는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해룡부대에 차출되었지만, 수영과 잠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는 창윤산의 도움으로 다른 부대로 옮겨간다.

그가 옮겨간 부대는 '831' 또는 '군중낙원'이라 불리는 군영 내 공창이다. 이곳에서 그는 공창의 매춘부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831'에서 복무를 하는 동안 파오가 격게 되는 많은 일들을 감독은 잔잔하게 그려간다. 입대 전부터 친구였던 화싱은 군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매춘부 사사와 함께 탈영을 하여 중국 본토로 도주하고, 파오를 아껴주었던 특무 상사 장윤산은 사랑했던 매춘부 지아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파오는 베일에 쌓인 매춘부 니니와 가까워 진다.

영화는 파오의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화싱과 사사, 장윤산과 지아, 파오와 니니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사랑'과 '공감'에 관한 것이지만, 파오의 성장영화이며 또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이산민의 아픔, 여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 억압적 군대 문화 등 60,70년대의 대만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스타일은 사적 경험을 통해 대만의 근대사를 이



야기하는 80년대 대만 뉴웨이브의 초기 영화들과 유사하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제작 총괄 및 편집에 참여한 것에 눈길이 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영화가 끝난 후 기자 회견에서 감독은 뜻 깊은 이야기를 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 앤서니 김]



대만출신 도제니우감독은 9살부터 연기를 시작하며, <소필적 고사 1983>로 최연소 금마장 영화제 남우주연상에 올랐다. 첫 장편 연출작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는 2008년 금마장영화제 2008년 대만 금마장에서 국제 비평가 연맹상,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넷팩 상을 수상했고, 더번 국제영화제, 로마 아시아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2007 남부 영화제 등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그 외 <맹갑 2010>, <사랑 2012> 등의 영화를 연출하였다.

Still Cut Story: 군중낙원



鈕承澤 作品
Doze, Niu Chen-Zer film

園樂中軍

“상대방이 약속을 지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약속은 자기 자신과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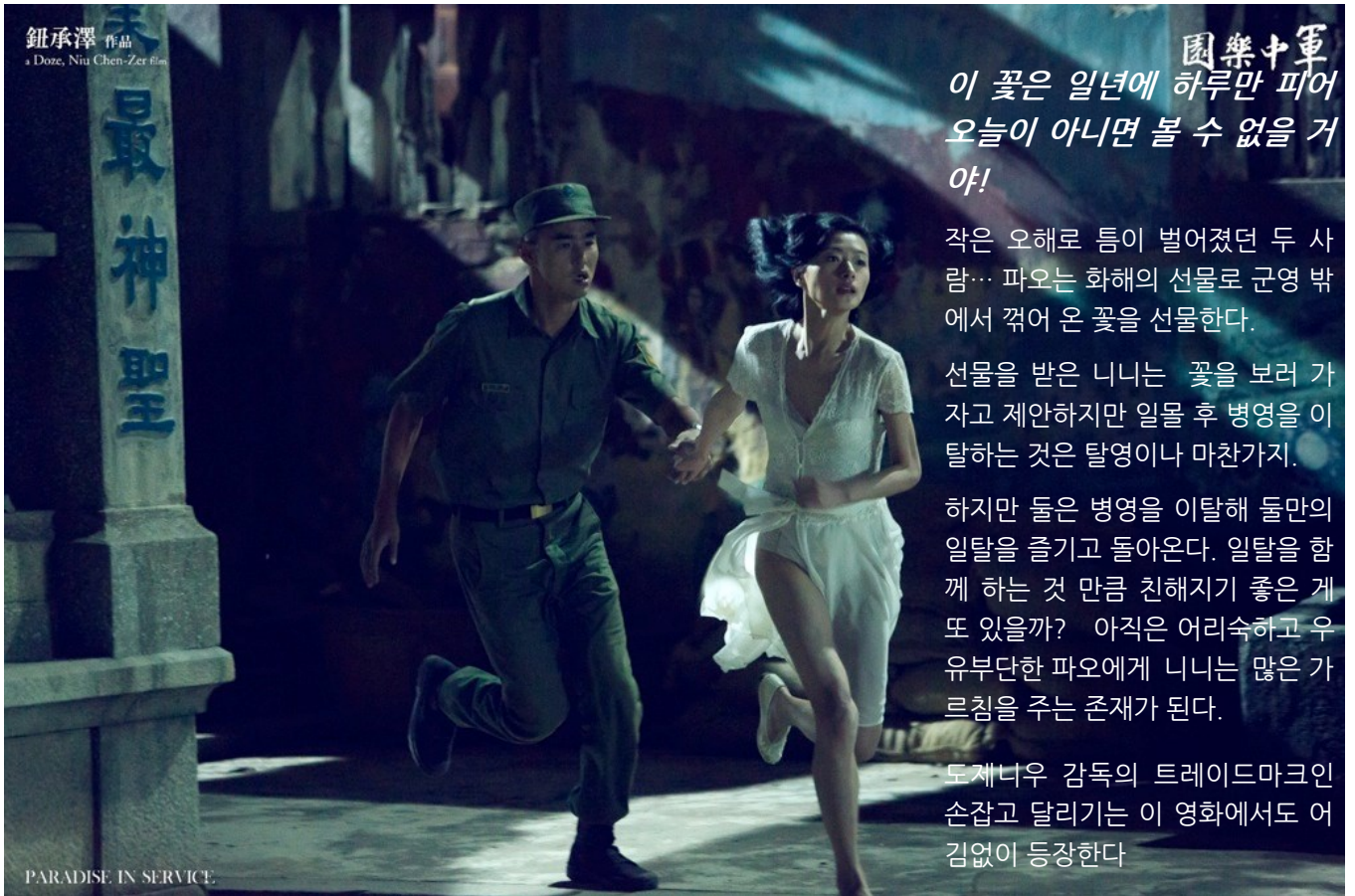
파오는 군중낙원이라 불리는 공창에서도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새기며 정조를 간직하며 산다. 하지만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그는 몹시 괴로워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니니는 파오에게 다가가 이렇게 조언해 준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약속은 자기 자신과 하는 거야’”

PARADISE. IN SERVICE.



“왜 남편을 죽인 여자와 가깝게 지내지?”

니니는 과거에 남편을 죽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어린 아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 어쩔 수없이 831부대에 자원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파오는 미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둘의 사이는 멀어지지만 니니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후 둘의 사이는 이전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鈕承澤 作品
a Doze, Niu Chen-Zer film

軍中樂園

이 꽃은 일년에 하루만 피어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을 거
야!

작은 오해로 틈이 벌어졌던 두 사
람... 파오는 화해의 선물로 군영 밖
에서 꺾어 온 꽃을 선물한다.

선물을 받은 니니는 꽃을 보러 가
자고 제안하지만 일몰 후 병영을 이
탈하는 것은 탈영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둘은 병영을 이탈해 둘만의
일탈을 즐기고 돌아온다. 일탈을 함
께 하는 것 만큼 친해지기 좋은 게
또 있을까? 아직은 어리숙하고 우
유부단한 파오에게 니니는 많은 가
르침을 주는 존재가 된다.

도제니우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인
손잡고 달리기는 이 영화에서도 어
김없이 등장한다

PARADISE IN SERVICE.



鈕承澤 作品
a Doze, Niu Chen-Zer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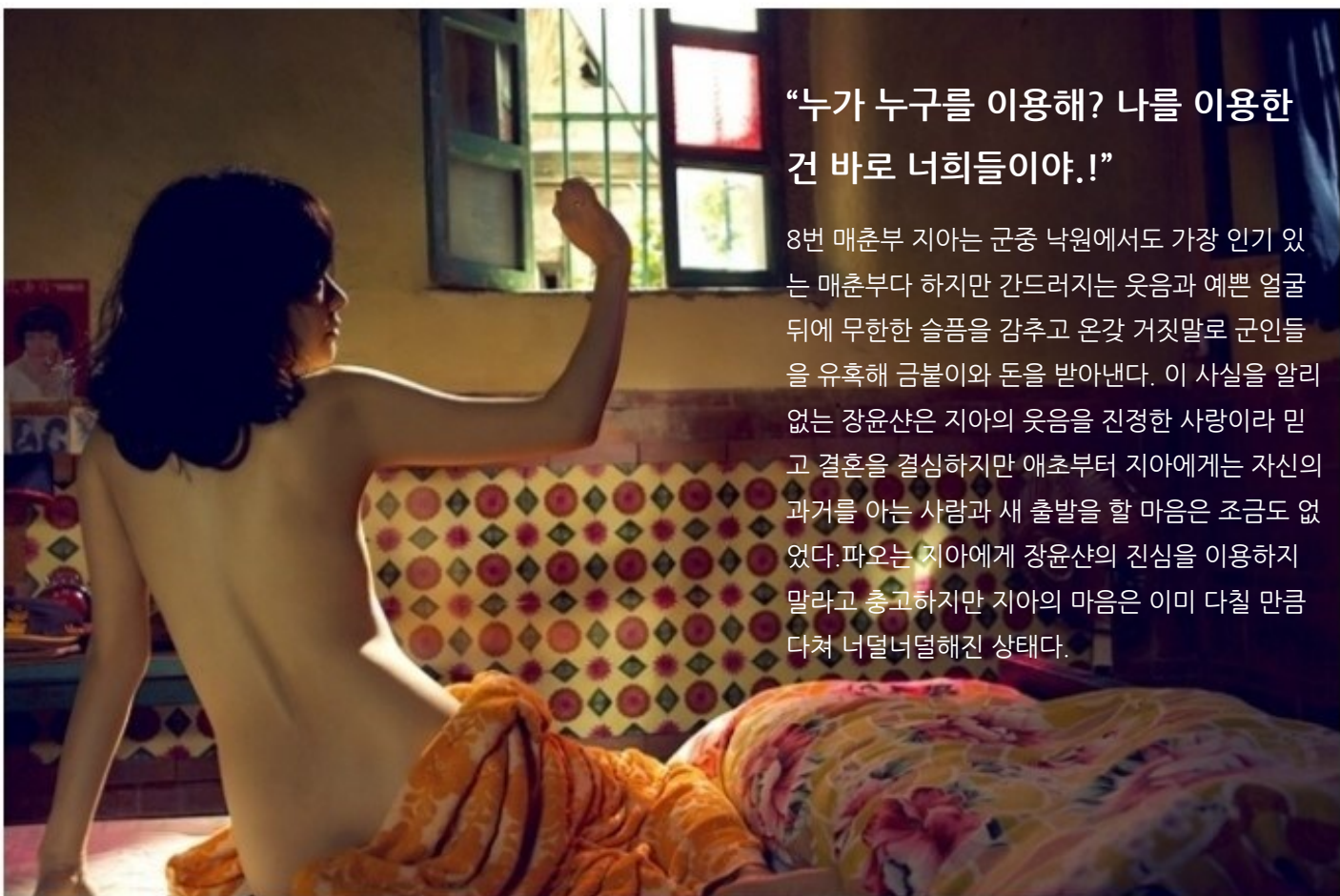
軍中樂園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장윤산은 파오의 직속 상관이자 파오를 군중낙원 831부대로 전출시킨 인물이다. 어린시절 갑자기 군대에 강제 징집되어 어머니와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멀리 타향까지 와버렸다. 어머니와 고향에 두고온 짝사랑하던 소 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부치지 못한 편지를 써내려간다. 고향에서 짝사랑하던 양치기 소녀와 닮은 매춘부 지아와 사랑에 빠져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만두는 영화에서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한다. 파오와 장윤산이 시장에서 처음 먹은 만두, 장윤산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만두, 장윤산이 사랑하는 지아에게 만들어주는 만두등 만두에 얽힌 이야기도 또 하나의 스토리로 등장하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누가 누구를 이용해? 나를 이용한 건 바로 너희들이야!”

8번 매춘부 지아는 군중 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춘부다 하지만 간드러지는 웃음과 예쁜 얼굴 뒤에 무한한 슬픔을 감추고 온갖 거짓말로 군인들을 유혹해 금불이와 돈을 받아낸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장윤산은 지아의 웃음을 진정한 사랑이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지만 애초부터 지아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파오는 지아에게 장윤산의 진심을 이용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이미 다칠 만큼 다쳐 너털너털해진 상태다.

우아한 그녀들… 백조의 발은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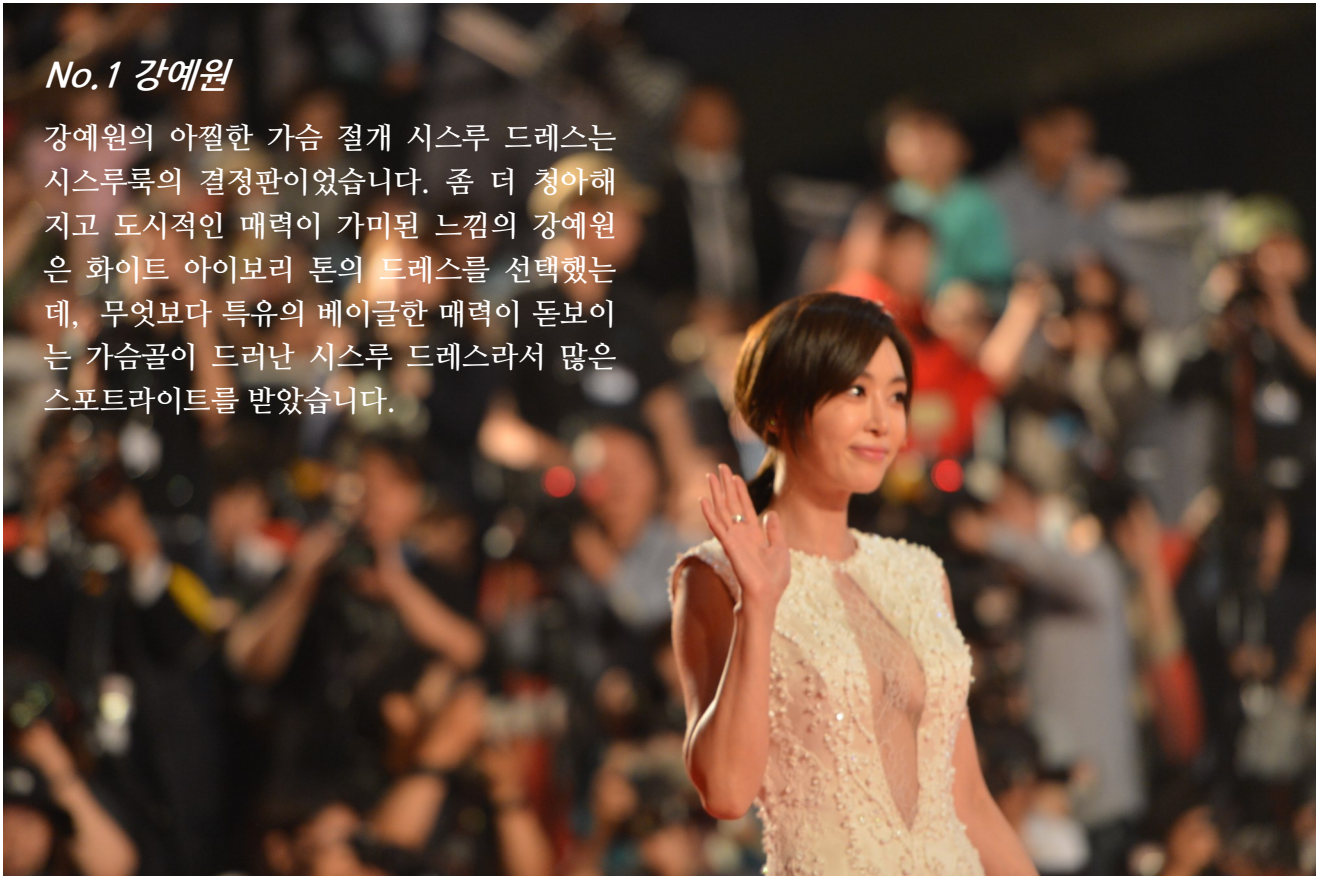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운 개막식 여배우 노출이 화제가 되었고,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2014년 주최측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영화제의 꽃인 레드카펫 행사에 연매협이 주도했던 연예인 초청명단을 영화제 초청작 출연배우 중심으로 채운 것이다. 여배우들에게도 노출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했다. 하지만, 모든 여배우들의 매력발산에 대한 욕망을 누를 수는 없었다. 공식요청에 맞춰 그녀들은 ‘우아’라는 컨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췄지만, 그녀들은 그녀들만의 매력발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시스루룩.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다.

코리언저널에서는 Forward, Back , Accessary로 구분하여 여신Best 3를 뽑아보았다.

Forward Best 3

No.1 강예원

강예원의 아찔한 가슴 절개 시스루 드레스는 시스루룩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좀 더 청아해지고 도시적인 매력이 가미된 느낌의 강예원은 화이트 아이보리 톤의 드레스를 선택했는데, 무엇보다 특유의 베이글한 매력이 돋보이는 가슴골이 드러난 시스루 드레스라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No 2. 조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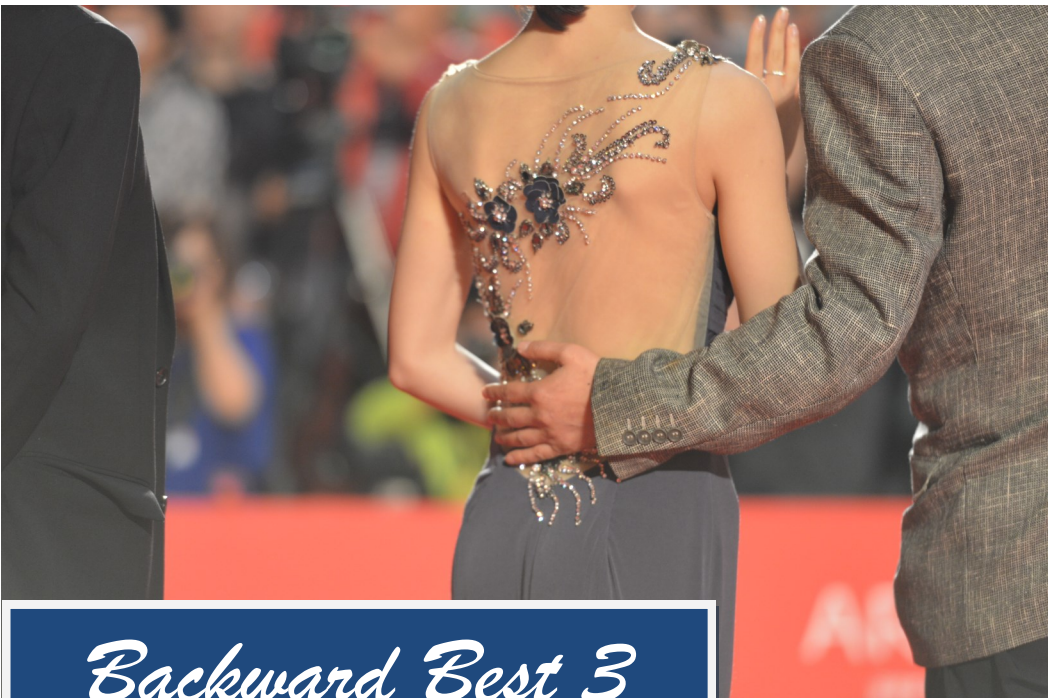
이전과 다른 조금 더 건강미를 과시했는데요.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역시 이번 영화제에 강림한 여신이었습니다.



"No 3. 민송아

민송아의 경우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유명하죠. 그녀는 그녀의 아찔한 볼륨감을 최대한 살리는 드레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No.1 나쁜손과 한혜리

문성근의 나쁜 손과 함께 찍은 한혜리의 사진은 시스루룩의 착시효과를 최대한 살린 드레스로, Backward best 1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Backward Best 3

No.2 도지원

Backward best 2로 뽑았지만, 그녀는 하이힐이 드레스에 걸려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는 에피소드로 더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도지원은 우아한 자태를 과시했습니다.



No.3 고은아

Backward best 3로 뽑았지만, 그녀의 볼륨감 넘치는 몸매 역시 화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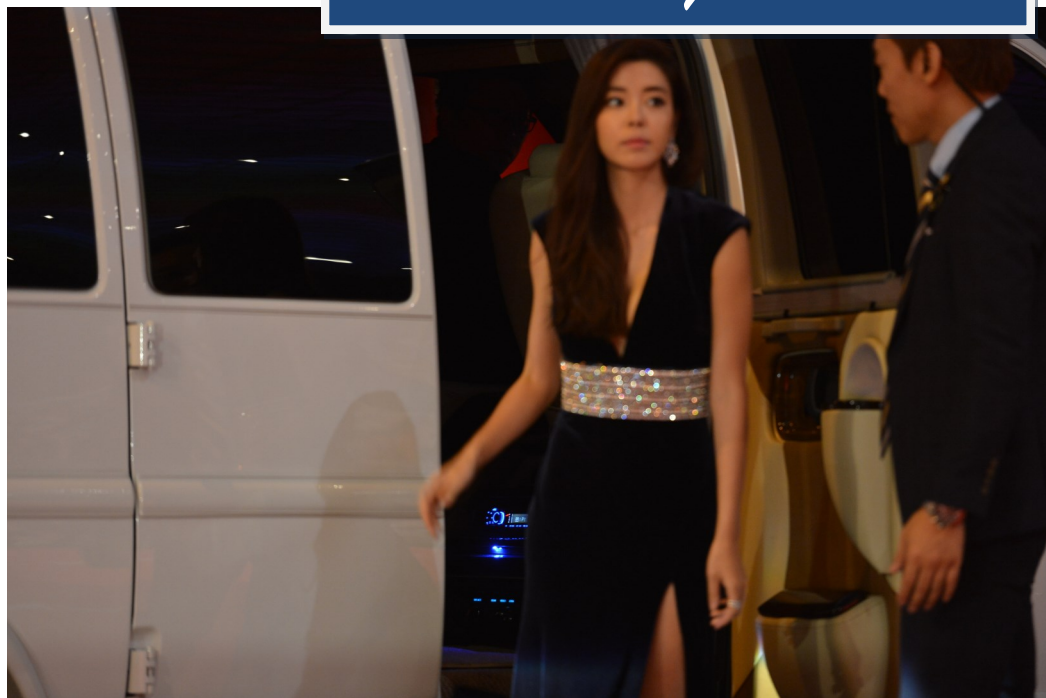
No.1 클라라의 목걸이

클라라의 드레스는 우아한 자태를 강조시켰지만, 목걸이는 더욱 섹시한 자태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Accessory Best 3

No.2 김규리의 허리벨트

청색의 청아한 드레스에 허리벨트는 김규리를 청아한 여신으로 등극시키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No.3 김희애의 핸드백

우아라는 장르를 만들었다면, 김희애를 뺄 수 없는데요. 이 드레스를 빛나게 한 핸드백은 아주 중요한 소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와!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뜨지 못했다.



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포토존과 드롭존은 기자들간의 자리싸움 경쟁으로 뜨겁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진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르다. 흔히 말하는 짜라시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기준은 틀릴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영화제마다 각각 여배우들의 노출에 대한 기사가 각각 대서특필되는 이유도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사를 생산해야만 하는 기자들의 입장이나,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되길 원하는 여배우의 입장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져 노출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졌던 것이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없었다. 노출에 관한 이슈가 없는 것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주최측이 지난 18회의 개막식의 노출에 대한 비난이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여배우의 노출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슈가 있었다. 속살이 다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한 여성이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플래시 세례가 어색하지 않은 듯 여유로운 미소로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그녀의 은색 드레스는 검은색 스트라이프로 포인트를 준 롱드레

스. 정면에서는 평범한 롱드레스지만, 측면이 상체부터 하체까지 시스루로 디자인된 옷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간 뜨.지.못.했.다.

듣보잡! 취재진들도 주최측들도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취재 이후 청룡영화제에 같은 디자인인 시스루 롱드레스를 입었던 이은우와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이은우는 아니었다. 그 뒤 기자들에게 배포된 개막식 참가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그녀로 추정되는 이름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지만, 언론에 노출시킬 기자들이 그녀의 이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녀는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기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우와”라는 탄성과 눈길을 끌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연예인에 밝은 연예기자들도 모르는 진정한 듣보잡이기에 개막식 후 일주일동안 묻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여곡절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밝혀진 그녀의 이름은 서리슬. 본명이 홍설희인 그녀는 1989년 생으로 명지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01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단역으로 본명인 홍설희로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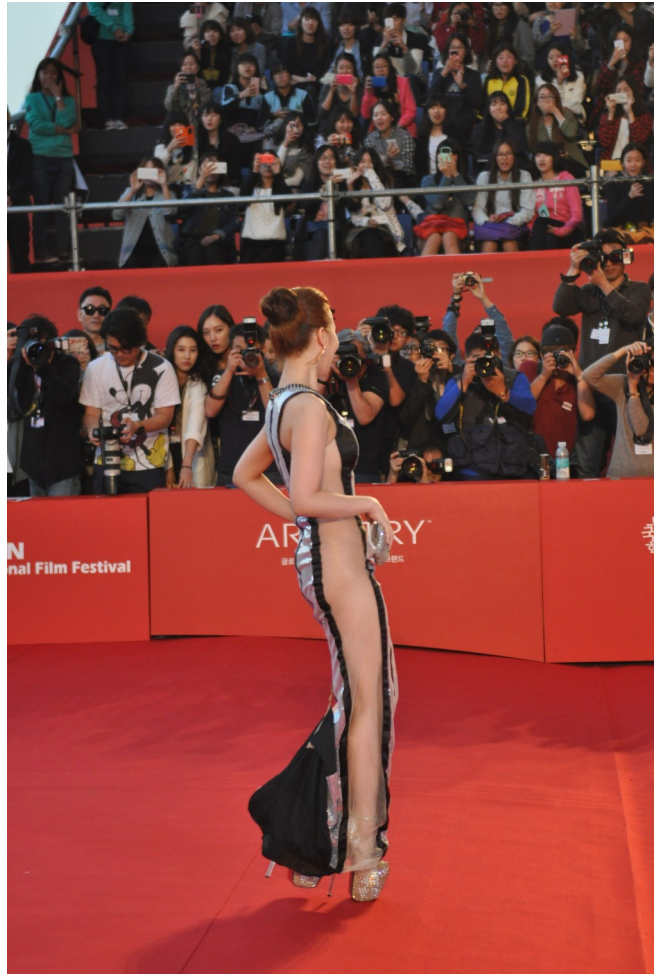
했으며, 공식적인 데뷔는 2003년 TV문학관 ‘효를 찾아서’에 출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KBS가 2013년 3월 사이버테러 이후 복원되지 않은 프로그램들 중에 속해있기에 찾을 수 없었다. 아무튼 ‘서리슬’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단역으로 궁녀(2007)로 영화에 데뷔 후 뼈꾸기(2013),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2014). 러브멘토(2014)등의 영화에 출연한 무명배우이다. 긴 무명기간을 거친 26세의 늦깎이 신인배우로서 뜨기 위해 선택한 것은 1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노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쓰는 10월 8일 현재 확인된 결과,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10월 7일 부터 그녀는 다음, 네이버, 줌의 실시간 검색어에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선수끼리(?)의 매커니즘을 몰랐기 때문이다. 즉 매니저가 홍보의 ABC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개막식에 가기 전 이미 뉴스1이라는 곳과 인터뷰를 했기에 그 기자에게 슬쩍 흘리는 선수(?)끼리의 매커니즘을 활용하지 못했다. 둘째, SNS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못 찾았으면, 본인이 나서야 한다. 사진과 함께 2014부산영화제 노출로 검색태그를 넣어놓았다면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셋째, 기사의 적시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이라도 알려지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이 실시간 검색어10위내에 오르지 못한 굴욕을 당한 것이다.

각설하고, 그녀는 뜨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글 이희재 hi@koreanjournal.net]





[칼럼]

서면에 서면...

부산의 서면..부산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부산진구 부전동과 전포동 일대가 해당되며, 넓게는 범천동이나 범일동까지도 서면 권역에 포함되는 곳... 대개 서면 지역은 서쪽으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나 부암역까지, 동쪽으로는 밀리오레, 남쪽으로는 교보문고, 북쪽으로는 부전역 일대까지를 이르며, 도시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와 철도가 집중되는 지역이란다.

부산의 서면... 서울의 명동과 같은 곳. 그곳은 어쩌면 부산을 대표하며, 부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 생각된다. 어떤 제목으로 글을 전개할까 고민하며, 부산출장 중의 취재수첩을 꺼내보았다. 짧은 시간의 출장이라 시간을 쪼개가며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이 여러 이야기를 어떻게 녹일까?”의 고민의 산물이 바로 ‘서면에 서면...’이다.

이번 부산출장의 목적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취재였다. 많은 기대속에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런 폭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서면의 주디스태화 근처... 쇼핑과 여흥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다만 연령은 10대, 20대 중심이었다.

늦은 저녁식사를 하러 방문한 곳은 바로 근처의 롯데백화점 근처...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방금 전 갔던 주디스 태화의 근처처럼 북적이지 않은 차분한 분위기라는 점잖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반된 분위기가 궁금하던 차에 취재시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모두 일관되게 등장하던 이야기가 부산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10~20대가 가는 곳이 바로 주디스 태화가 있는 근처이고, 롯데백화점 근처는 30대 이상이 자주 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들속의 숨은 뜻은 정작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30대 이상이 지갑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4월에 발표된 한 연구원의 보고서 결과는 부산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산경제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현재 부산경제가 위기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부산시민 10명중 8명이 부산의 경제사정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로 기업과 공장의 역외 이전, 인재 유출에 따른 산업기반 위축,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봤다. 부산의 무역규모도 지난 2011년 이후 3년만에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광주, 충북에도 뒤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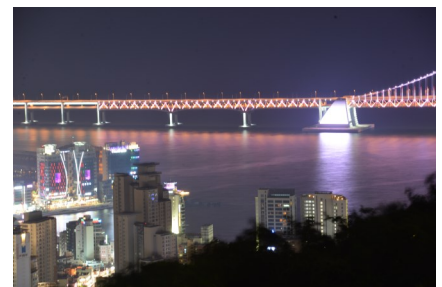


국 11위 수준이다. 부산의 1인당 연구개발(R&D)비는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R&D에 대한 투자는 그 지역의 비전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부산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부산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찌 현재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부산만의 문제일까? 전국적으로 내수가 힘들기에 자력갱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속칭 뜨내기 손님이라는 관광객만으로 수입이 이뤄지는 국가는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서면에 서본다. 어찌면 부산의 내수경제를 알 수 있는 이 곳은 무겁다. 겉의 화려함이 아닌 정작 중요한 생산의 주체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글 정원훈, 사진 남상열]





[탐방기사] 영화보다 흥미로운 부산 나들이

부산은 특히 명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명소라 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훌륭한 곳이 즐비하다. 부산은 현재 영화의 축제기간이다. 지난 10월 2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계속되는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해 모든 시선은 부산으로 쏠려있다. 영화를 보기위해 부산을 찾았다면 하루 정도는 부산 나들이에 투자해보자. 영화보다 더욱 흥미로운 부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거늘 부산을 찾았다면 일단 돼지국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자. 이유가 어떤든 기원이 어떤든 부산하면 돼지국밥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의 변화 과정엔 언제나 돼지국밥이 등장하듯이 돼지국밥은 이미 부산을 대표하는 서민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조금은 특별한 돼지국밥집을 찾는다면 재송동에 있는 양산국밥을 추천한다. 2005 APEC 공식식당으로 지정될만큼 맛과 서비스에 월등하며 직접 만든 손순대가 별미이다. 뽕안 국물에 살코기와 삼겹이 적당히 섞여 있어 여성손님도 자주 찾는 곳이다. 또한 손님들에게 한 잔씩 서비스로 제공되는 막걸리에서는 주인장의 정까지 느껴진다.





어느덧 배가 불러오면 신발끈을 동여메고 이기대공원으로 가자. 장산봉 동쪽 산자락에 바다와 면하여 있는 공원으로 해안 일대에 약 2km에 걸쳐 기기묘묘한 바위로 이루어진 암반들이 바다와 접해 있어 걷는 자체에 즐거움을 준다. 이왕이면 해안절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해안길을 추천한다.



일렁이는 파도소리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냐시꾼들의 모습에서 또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부산 관광지 중 자연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이기대 공원은 도시와 바다가 바다가 어우러진 전망을 품은 곳으로 영화 ‘해운대’, ‘깡철이’, ‘박수건달’ 등의 배경으로 등장을 했던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다.

바닷바람으로 으스스해진 몸을 따끈한 우동으로 달래보

자. 부산 서면에 한 우동집에 들어가면 인자한 인상 뒤로 꽤 낮이 익은 사장님이 손님을 반겨주신다. 바로 김정길



前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운영하는 ‘하루’라는 일본 가정식 요리집이다.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에 반해 가격은 무척 저렴하다.

가볍게 한끼를 떼울 수 있는 우동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코스요리까지 메뉴가 참 다양한데 특히 진한 국물의 나베와 바삭바삭한 튀김은 부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맛이다. 남몰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까지 하는 우동국물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식당임엔 틀림없다.

영화보다 흥미로운 부산 나들이는 하루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산은... 어디인가....

[글, 사진 남상열]

부산국제영화제 뒷담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본 옥의 티]

숙박이 성수기요금이라요!

- 가장 싸다는 도요코인 호텔에 갔었죠. 성수기요금이 적용되어 더욱 부담이 되었답니다. 더 낮은 가격과 서비스를 찾아 모텔을 헤맸는데, 더 낮더군요. 숙박 뿐 아니라 고물가로 힘들었습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본 옥의 티]

“추첨번복, 통제불능”

-레드카펫에 왜 관계자가 지나가요? 또한 사진으로 이슈를 찾는 기자에겐 독재국가도 아니고, 복장규정이란요?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레드카펫에서는 셀카금지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취재블평]
등...



‘등은 말이야 만지면 만질수록 아주 좋아요 으흐흐.’ 나에게 이런 여배우 등에 관한 질 낮은(?) 글을 쓰라는 국장님의 단골집 사장님의 말이다. 사장님은 흥대에서 등갈비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먹는 것과 성욕은 같다고 공자는 말했다던가. 도지원 엄정화 이하늬 탕웨이 강

예원 김희애 한예리 부산에서 본 여배우들의 등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러다가 ‘등’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였다. 나에게 이런 두려움에 대해 정신과 의사형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정도 집착은 나도 있어 걱정 하지 마! 짜샤 오랜만에 온 김에 소주



나 한잔 사라”

우리는 여배우들을 좋아하지만 뒤에 가서는 씹는다. ‘누구와 그렇고 그렇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로 그녀들을 비웃고 씹는다.’ 확실히 섹시함은 남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문제는 내 여자의 섹시함은 불안으로 다가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만 섹시한 착한 여자를 찾게 된다.

"예쁘게 방긋방긋 웃자. 무서운 얼굴을 하지 마라. 시름에 젖지 말고 항상 쾌활해라. 노동으로 고생한 남편을 옆에서 위로하고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슬리지 말고 탄식도 하지 마라."

근대 일본의 여성 잡지 '주부의 벗'(1917년 8월호)에 게재된 '주부의 노래' 일부다. 필자는 '이름 없는 모 부인'. "(주부가) 남편에게 천사가 돼야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훌륭한 이론(?)을 만든 것은 물론 남자들이었다. 전쟁 전 군국주의 사회 일본에서 미인은 남편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쾌활하게 웃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주부의 탄생 (기무라 료코)은 이런 위선적인 군국주의 시대 여성 만들기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책을 읽은 나는 나도 모르게 뜨끔했다. 내가 원하는 여성은 여성도 원하는 여성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환상일까. 여자배우들의 등을 국장님의 하명(?)에 의해 엄청나게 찍는 순간 들었던 생각이다.

아이폰을 만든 천재 잡스형님의 마누라 조건은 모순적이었다. 그의 모순되고 황당한 조건을 보면 첫째 똑똑하면서도 가식이 없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면서도 남자들 위해 양보해야 한다. 셋째, 털털하면서도 천사 같아야 한다. 넷째, 팔다리가 긴 금발 미인이며 유기농 채식주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1989년 만난 7년 연하 대학원생 로렌 파월이 그런 여자였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는 살아 본 잡스 형님만이 아실 일이다. '섹시하면서도 착한여자가 좋아' 가끔 모임에서 보는 가수 조영남형의 이상적인 여자 관이었다. 나도 섹시하면서 착한 여자를 찾아 헤맸다. 결과는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남자 분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의 소심함으로 인해 나는 섹시함을 포기했다. 내 여자 친구는 착하기만 하다.

등을 가지고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야하고 그러면서도 지적인 글을 쓰라는 국장님의 비상식적인(?) 주문을 듣고 글을 쓰려니 글이 횡설수설되었다. 확실한 것은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여배우들에게는 감사하다는 것이다. 한 남자의 이기적인 소유로 남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글을 마무리 하는 순간 등도 별로이고 성격도 별로인 내 여친이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해야 겠다. "자기야 오늘 홍대에 가서 등갈비 먹을까?"

[글 전성민 사진 남상열]



소녀시대 제시카 방출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가 소속사 SM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는 30일 새벽 자신의 SNS에 “다가오는 공식 스케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으나, 회사와 (나머지 멤버)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제시카는 “소녀시대 활동을 우선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는데, 정당치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제시카는 팬들의 댓글에 “난 깊은 슬픔을 느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남겼다.

갑작스러운 제시카의 글에 네티즌들은 SNS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날 중국 팬미팅을 위해 출국하는 현장에 제시카를 제외한 8명만 모습을 드러내 제시카의 퇴출설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 제시카가 최근 JYJ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30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제시카가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고 보도했다.

제시카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임상혁 변호사는 과거 SM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법정싸움을 한 JYJ의 변호를

맡아 이를 승소로 이끈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로 만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시카 퇴출 통보 글이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 앤서니 김]



ONLINE

게임은 자유이다.

게임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사로잡힌 적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은 하나이다. 게임은 게임이다. 무슨 소리냐고. 단순한 게임부터 복잡한 게임까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임에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로 없다는 것이다. 게임이 게임인 이유는 즐거움을 줄 때이다. 게임은 재미인데, 게임기획자가 되면 즐거움은 사라진다. 기획자는 즐거움을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을 웃기는 개그맨이 정작 자신은 무엇을 보아도 웃음이 안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공감이 간다. 지나친 통제와 기획은 게임을 만들 때의 상상력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만든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즐거움을 넘어서 유저를 감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다. 사실 감동은 연출될 수 없다. 어떤 위대한 기획자도 감동을 연출할 수 없다. 유저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게임을 했다. 게임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현실에서 받을 수 없는 즐거움을 선물 받았다. 소설이나 영화 만화의 재미 보다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발견했다. 그건 그 게임을 만든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른 재미와 감동이었다. 게임에서의 감동은 재미에서 기인한다. 그 재미는 제한 없는 자유로운 상상이다.

<GTA>는 일탈의 경험을 준다. 재미있다. 누군가는 반사회적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재미있는 게임이 곧 좋은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임이 공익적이라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공익적인 것을 찾으려면 세계문학전집을 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게임의 속성은 어디까지나 재미이다. GTA는 우리가 아는 현실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자유로운 행동들을 하게 해준다. 당연히 폭력이 포함된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 정 반대이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속에서 일상의 욕구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평온해 질 수 있다. 정말 재미있는 액션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즐거운 느낌을 받는다.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을 심의하고 통제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다 개소리이다. 게임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도시인들은 외롭다. 사는 공간은 너무 좁고 도심의 밖은 삭막하다. 현실의 공간은 도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메마른 도시인들에게 공간의 자유와 상상력의 자유를 주는 것이 게임이다. 상상을 제한하는 삭막함을 벗어나는 요소가 게임에는 있다. 게임은 메마른 도시인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공간을 탈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공간이다. 이 자유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게임기획자도 결국 유저이다. 게임기획자도 게임을 해하려고 게임을 즐겨야 한다. 게임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게임은 기획과 통제로 감동을 만들려는 우를 범한다.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잊어야 한다. 게임은 공간의 한계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게임은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은 자유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이다. 게임은 자유이다.



박성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던전 앤 파이터의 메인 기획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주)내꺼의 대표이사이다.

불황기 똑똑하게 신축빌라 고르는 네 가지 방법

 **코리언 저널**
www.koreanjournal.net

평생 한두 번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신축빌라의 정보가 부족해 선부른 판단으로 재산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생생빌라 정보통이 행복한 내 집 마련이 불행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빌라분양 물건은 한 번쯤 색안경을 끼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화려한 내부 실내장식에 현혹되기보다는 내외부 단열재나 내부 자재가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내외부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겨울에 심각한 결로 현상으로 물이 줄줄 흐르고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비자는싼 매물만 찾다 보니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둔갑하고 베란다가 불법확장된 신축빌라를 구매하라고 분양업자가 부추기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 신축빌라를 구매 전 반드시 건물내역을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와 불법개조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변 환경과 교통, 학군,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분양업자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보다는 주변의 흐름을 인근 부동산이나 관계부처

에 확인해 개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집을 다시 되팔았을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다.

네 번째, 신축빌라는 남향이라는 방향은 중요치가 않다.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고 빌라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곽이 아닌 도심 5층 이하의 건물들은 남향이라고 좋아할 수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앞 단독주택 건물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5층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면 남향이라는 가치가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재산적 가치도 하락한다. 막힐 염려가 없고 조망이 좋은 동향, 서향이라면 굳이 남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많은 신축빌라 정보업체 중에서 진실한 전문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축분양 정보업체 사이트들은 경쟁구도 속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낚시성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매물을 실제 매물인양 허위 광고를 해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현혹하고 원치 않는 매물을 구매하라고 부추긴다.

전화만 오더라도 “정말 이 가격에 나온 매물인가요”로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을 볼때면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불황기에는 신축빌라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꼼꼼히 살펴야 투자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글 김소연]



헤리티지앙상블과 함께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해보자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의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동문들이 모여 2011년에 창단한 헤리티지앙상블이 10월 9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4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11월 9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12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이라는 부제로 헤리티지앙상블 정기연주회 전국투어 공연을 개최한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이라는 부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멘델스존이 작품으로 발표한 트리오 작품 2곡중 하나인 F. Mendelssohn Piano Trio No.2 in c minor, Op.66과 차이코프스키가 1881년 루빈스타인(Nikolai Rubinstein)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작품이자 본 공연의 부제와 같은 제목으로도 불리는 P. I. Tchaikovsky Piano Trio in a minor, Op.50의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투어에는 뉴욕주립대(Long Island) 교수,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축하공연 실내악 담당 지도교수, 전북대 강의전담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성남문화재단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예원, 서울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예고, 선화예고, 영남대, 성신여대 출강 역임하고 현재 윤이상 앙상블, 어울림체임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민경아 그리고 프랑스 뻬까르디 유러피언 콩쿨 1위,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쿨 3위, 까를로스 쾨브로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예원, 서울예고, 단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세대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소원이 출연한다.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마음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함께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추천하며, 이번 헤리티지앙상블 전국투어 공연에 큰 관심이 주목되는 것을 예상해 본다.

본 공연은 미취학 아동은 입장할 수 없으며, 티켓 구입 및 기타 문의는 December Performing Art(디셈버 퍼포밍 아트) 02-588-2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리티지앙상블 다섯번째 이야기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F. Mendelssohn Piano Trio No.2 in c minor, Op.66
P. I. Tchaikovsky Piano Trio in a minor, Op.50

since 2011

heritage ensemble

헤리티지앙상블



Violin
다니엘 전



Cello
민경아



Piano
황소원

광주 2014. 10. 9. [목]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www.usquareculture.co.kr

전주 2014. 11. 9. [일]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www.sor21.co.kr

대구 2014. 11. 4. [화]오후 7시30분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www.ssaarpia.kr

서울 2014. 12. 12. [금]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14 ARTS CENTER
리사이틀홀 www.sac.or.kr

주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헤리티지앙상블 주관 : DECEMBER PERFORMING ART 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동문회
입장연령 :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입장권 :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 DECEMBER PERFORMING ART (02-588-2510)
[공주(시)구(군)전주]

SACTicket
www.sacticket.com
02-588-1300

인티티크 티켓
www.inticket.com
1588-1355

키켓링크
www.kicket.com
1488-890

AUCTION
www.auction.com
1588-1300

T24
www.t24.com

엠넷 티켓

진접

장현

오남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 성공투자를 예약하십시오

진접지구 1만5천여 세대 배후수요는 물론 장현, 오남지구 4만여 세대 수요가 몰려오는 남양주 최대 신도시 네트워크 상권에서 황금빛 성공을 예약하십시오.

남양주 진접 버킷플렉스



- 3면 개방 코너상가
- 4호선 진접역 확정
- 백병원 바로 앞
- 이마트 롯데시네마 인접

*본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BUCKET ★ PLEX

오감이 행복해지는 이유!



BUCKET 버킷플렉스 PLEX

문의
전화

1899-5205

시행 일호개발주식회사

시공



지금관리

하나자산신탁